강북구, 학교 복도·유휴공간 활용 '일상 속 미술관' 확산

김희철 전문기자 | 승인 2026.10.16 16:59

강북구 관내 유휴공간 활용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수성 제고
구민 도슨트 연계 프로그램 운영하며 친숙한 문화 환경 조성
4년간 14개교 참여 성과...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거점으로 도약



강북구 구민 도슨트가 수유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미술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북구청 제공)

[베이비타임즈=김희철 전문기자]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는 미술관' 사업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복도와 유휴공간에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4년간 관내 14개 학교에서 학생 7357명이 참여했으며, 2024년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

했다.

전문 교육 과정을 수료한 구민 도슨트가 현장에서 작품을 직접 해설해 학생들의 예술 이해와 체험을 돕는다. 올해는 수유초·유현초·인수초·수유중 등 4개 학교에서 전시를 진행하며, 도슨트 프로그램은 11월 10일까지 학교별 일정에 맞춰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문화재단 예술교육팀에 문의하면 된다.

강북문화재단은 "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이 특정 공간이나 특정 계층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베이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희철 전문기자